







## Ⅱ. 임길진 커버스토리 (Cover Story)

표지인물 커버스토리  
Cover Story

이번 3월호에서는 KCDC를 이끌어 가고 있는 박정근 원장님의 인생의 멘토. 임길진학장님의 스토리를 담아보았다. 무엇을 계기로 박정근 원장님의 멘토가 되었는지, 어떠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지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 인적사항

- 성명: 임길진
- 생년월일: 46년
- 현 소속: 사망, 전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장
- 학력: 서울대 학사(건축공학), 하바드대 석사(도시계획),  
프린스턴대 박사(도시계획)
- 전공: 도시계획
- 좋아하는 스포츠: 태권도

### 경력

- 2001. 7 - 2005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좌교수
- 1998. 7 - 2001. 6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및 석좌교수
- 1995. 11 - 2005 미시건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세계 속의 아시아 석좌교수 겸 지리학과, 도시계획학과 및 토목 및  
환경공학과 교수, 인간적 세계화 연구회장
- 1991. 1 - 1995. 10 미시건주립대학교 국제대학장 겸 지리학과 및  
도시계획학과 교수
- 1985. 9 - 1990. 12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UC)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공공정책연구소 부교수, 정교수, 학부 주임교수
- 1980. 9 - 1985. 8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외교행정대  
조교수 겸 행정-계획학 석사 과정(MPA-URP) 주임 교수
- 1978. 9 - 1980. 8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공과대학 조교수



## 표지인물 임길진 학장님에 관한 글 정리(박정근: 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

이미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이래 이번 3월호에 표지인물로 모셨습니다. 직함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제일 친숙하게 부르는 직함은 학장님이십니다. 저는 그 당시 미시간주립대(MSU) 한국유학생 회장이었으며, 임학장님은 국제대학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학장님 호칭이 제일 친숙해서 지금도 간혹 학장님을 생각하면서 학장님, 학장님으로 부릅니다.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2005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및 전 세계에 큰 업적을 남기신 세계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신 훌륭한 지도자이시기에 짧은 기간동안 이나마 임학장님 관련 자료를 찾아서 그의 리더십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네이버에서 검색한 자료만을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자료들이 누락되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자료를 구하러 이곳저곳으로 연락하기도 불편해서 적은 자료이지만 제 생각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KCDC Coach-Leader 2021년 3월호 메거진에 나의 멘토로서의 임학장님에 대한 작성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박정근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인생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세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분은 제가 박사과정 유학 시절 그 당시에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장이신 임길진 학장님이셨습니다. 국제대학장에 지원하신 분들이 150여명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한국분이 학장에 임용되었다고 해서 유학생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길래 쟁쟁한 본토 사람들을 물리치고 한국 오리지널 유학생 출신 교수가 학장이 되었다고 해서 한국 유학생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임용되자마자 졸업식에 총장을 대신해서 연설을 하는데 발음은 완전히 한국식인데 스피치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많은 청중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연설을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마침 제가 한국 유학생 회장 자격으로 자연스럽게 뵈 시간들이 많아서 함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에게 배운 것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력이었습니다. 업무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의리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를 동생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교수가 안 돼서 한국에서 강사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국제전화로 학과사무실로 전화해서 저와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과사무실에 국제전화를 해서 통화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호서대 교수 지원했을 때 총장실에 직접 팩스로 본인 소개를 하면서 박정근 박사를 강력하게 추천하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호서대에서 이런 지원자를 놓치면 안됩니다'는 내용의 팩스를 2번이나 넣었다고 교수임용 후에 총장 비서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강하게 추천해 주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추천해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던 분이 안타깝게 학교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전화하실 때마다 '박 박사 잘 지내시오?' 하시면서... KCDC 1주년 학술대회 때 직접 학술대회장을 찾아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부금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리

고 제 안식년 기간에 함께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체육 분야는 항상 저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상담했을 때 과감히 출마하라고 추천해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Coach-Leader 매거진(2021년 3월호, p.13)

간단히 임길진 학장님은 어떤 리더인가? 리더십 이론, 특히 특성론(물론 타 이론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리더입니다)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저와 함께 했던 시절은 MSU 박사과정시절 유학생 회장 신분으로 코리안페스티벌, 남북한 세미나 개최 및 다양한 학생회 행사 등, 그리고 귀국해서 교수 임용 전 강사 시절 세계청소년네트워크 체육담당위원으로서 조선일보와 함께 키드넷 운동(임길진위원장)을 펼칠 때이며 교수 임용문제도 많은 도움을 주신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동창회에서 자주 만났으며,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시에 적극적인 추천과 도움에 지금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본 학장님의 리더십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존칭 생략).

### 1. 추진력:

- 아래 이력들을 보면 가히 놀랍다. 단순히 학력, 경력, 학술 단체활동, 사회활동을 보기만 해도 놀랍다. 어마어마한 업적이다. 더군다나 업적 하나하나씩 분석해보면 각 개별 업적 하나하나가 엄청난 성과를 지닌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꾼 성과도 많이 있다. 학장 임용때 지원자가 150명 정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학장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이 다른 지원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MSU에서도 학장님을 임용했는지 모른다. 그 당시 아시아 최연소 학장으로 회자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한국 학자들 중에서 한국사람으로서 첫 대학 학장에 취임하는 경사였다. 그의 추진력은 이력서를 참조하면 됨. 즉 훌륭한 지도자는 보통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리더십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다.

### 2. 네트워크:

- 요즘 리더십은 네트워크의 리더십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인맥 쌓기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 임학장님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양적과 질적인 면에서 최고치이다. 임학장님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전문분야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프로젝트별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성과를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그 네트워크 중심에는 항상 임학장님이 계셔서 성과물을 창출해 낸다. 경기중고, 서울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출신 막강한 학맥과 국내외 학자, 정치인, 경제인, 관료, 언론인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다.

### 3. 지적능력:

- 지적능력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학장님 기사를 보면 교양영어때 공부를 안해서 D를 받았는데 마음먹고 영어공부를 했더니 토플 642점(그 당시 거의 만점 수준)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수석 졸업, 형제가 모두 변호사, 서울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DNA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지적능력으로 교수, 행정가, 사회운동가, 시인 등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

#### 4. 자신감:

- 말과 행동에 자신감이 묻어 나온다. 보통 자신감은 과거 수행성취(성공)를 통해서 자신감이 높아진다. 다양한 성공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자신감이 묻어 나온다. 즉, 연설, 걸음걸이, 태도, 행동 등에 항상 강한 자신감의 모습이 보였다.

#### 5. 언어구사력:

- 대중 연설을 할 때, 회의 연설을 할때 보면 대중들을 사로잡는 고급언어로 뛰어난 구사력을 발휘한다. 영어발음은 완전 한국식 발음이나 스피치 내용은 최고의 웅변가로서 탁월함이 느껴진다. 직접 들어본 경험이다.

#### 6. 체력:

- 내가 박사과정 있을 때 한번 물어보았다.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 도대체 잠은 주무시냐고? 몇시간 주무시냐고? 물어보니 하루에 3시간 정도 잔다고 했다. 체력 또한 탁월하다.

#### 7. 열정:

- 이러한 열정은 어디서 왔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인의 철학에서 왔다고 본다. 대한민국(또는 전세계) 전체를 업그레이드(발전) 시켜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일들을 많이 벌렸다. 보통사람들은 한가지 일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동시다발로 다양한 일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열정에 존경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 8. 철학:

-항상 세계인으로서 생활하셨다.

#### 주요 인적사항

- 성명: 임길진
- 생년월일: 1946년 11월 10일
- 경력(사망 직전)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장, 지리학과/도시계획학과/토목 및 환경공학과담당 교수 및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 국제정책대학원장 겸 석좌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학력: 서울대 학사(건축공학), 하버드대 석사(계획학), 프린스턴대 박사(계획학)
- 주요경력: ROTC 장교 복무,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린스턴대 교수, 일리노이대 교수, 인간적 세계화(Humanistic Globalization) 연구회장, 개발연구협의체 이사장, 주거복지연대 초대이사장, 한국부패학회 제5대 회장(2004.3.1.-2005.2.11.), 키드넷운동(어린이 인터넷 보급 운동) 창시자, 재외한민족협회준비위원장 등
- 사후 후학 또는 관련기관에서 제정된 상: 임길진환경상(환경운동연합), 임길진룸(주거복지연대), 임길진박사학위논문상(ACSP)

## 1. 임길진(林吉鎭) 소개서

2003.03.20. 기준

임길진은 현재 미시간주립대학교의 석좌교수, 인간적 세계화 연구회회장, 그리고 KDI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교육행정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석사프로그램을 관장하였다.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는 도시 및 지역계획학 학부의 주임교수를 맡았다. 그리고, 미시간주립대학교의 국제대학장직을 역임하였다 (1991-1995). 그는 다섯 개의 지역연구센터, 여섯 개의 주제연구소 등을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 교수와 학생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연구비와 장학금 지급제도를 창안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그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초대원장으로 세계적 문화분위기 속에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적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그는 태평양 양쪽에서 국제적인 교육기관의 원장을 지내고 석좌교수로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학자로서 그는 전략적 계획과 국가사회 개발에 대한 범 학문적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국가개발, 주택, 환경, 지역계획, 국제교육, 계획이론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국제개발기구, 한국 국토개발연구원 등을 포함하는 여러 기관과 함께 일해왔다. 그의 저서와 논문 중 많은 부분이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교육과제-수행법 (TOTM-Task Performance Oriented Teaching Method)이라는 독특한 교육방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학생의 창의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생들간의 비판적 의식과 논리적 사고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고안된 방법이다. 그는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재직 시절, 자신이 강의한 모든 과목에서 최우수 교수로 선발되는 기록을 남겼다.

봉사하는 사회인으로 그는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세계 사람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자유, 정의, 평화 그리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그의 교육적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거복지연대의 이사장인 그는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여러 연구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는 한국 청소년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실천하고자 1996년에 학교정보화를 도모하는 세계청소년네트워크를 개발연구협의체 산하에 창립하고, 1997년에는 교육정보공동체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청년세계탐구단의 이사장으로 청년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인류사회의 과학화, 문화화, 인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3년 그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임길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건축공학 학사, 1969년 및 석사, 1973년)을 거쳐 하버드 대학교(도시계획학 석사, 1975년)와 프린스턴 대학교(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1978년)에서 수학하였다.

현직: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좌교수 겸 지리학과, 도시계획학과 및 토목 및 환경공학과 교수

인간적 세계화(Humanistic Globalization)연구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석좌교수  
 개발연구협의체 이사장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생년월일 : 1946년 11월 10일 국적 : 한국

학력 :

1975. 9 - 1978. 8 Princeton 대학교 계획학 박사(Ph. D.)  
 1973. 9 - 1975. 6 Harvard 대학교 도시계획학석사(M.C.P.)  
 1971. 9 - 1973. 8 서울대학교 대학원(공학석사)  
 1965. 3 - 1969. 2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공학사)

교수 경력 :

1995. 11 - 현재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세계 속의 아시아 석좌교수 겸 지리학과, 도시계획학과 및 토목 및 환경공학과 교수  
 인간적 세계화 연구회장  
 2001. 7 -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좌교수  
 1998. 7 - 2001. 6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및 석좌교수  
 1995. 11 - 현재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세계 속의 아시아 석좌교수 겸 지리학과, 도시계획학과 및 토목 및 환경공학과 교수  
 인간적 세계화 연구회장  
 1991. 1 - 1995. 10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대학장 겸 지리학과 및 도시계획학과 교수  
 1985. 9 - 1990. 12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UC)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공공정책연구소 부교수, 정교수, 학부 주임교수  
 1980. 9 - 1985. 8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외교행정대 조교수 겸 행정-계획학 석사 과정(MPA-URP) 주임 교수  
 1978. 9 - 1980. 8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공과대학 조교수

학술단체 정회원:

- ◇ 미국계획가협회
- ◇ 미국계획학대학협회
- ◇ 미국경제학회
- ◇ 미국정치학회
- ◇ 미국토목공학회
- ◇ 미국지리학회
- ◇ 유럽국제교육학회
- ◇ 한국정치학회
- ◇ 한국경제학회
- ◇ 한국경영학회

자문위원 및 사회활동:

- ◆ 세계은행자문위원
- ◆ 아시아개발은행 자문연구원
- ◆ 미국 국방성 자문위원
- ◆ 미국 국제원호처 자문위원
- ◆ 미국-독일위원회 자문위원
- ◆ 미국 교통성 계약연구 주임연구원
- ◆ 미시간 주 한국-미시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 ◆ 미국 중서부대학교 국제사업총연합회 (MUCIA) 이사, 부이사장
- ◆ 미시간 일본센터 행정위원장 의장
- ◆ 한국 교육부 자문위원
- ◆ 한국 환경부 국제자문위원
- ◆ 한국 국토연구원 초청연구원
- ◆ 세계청소년 네트워크 회장
- ◆ 한백재단이사
- ◆ 미국 미래재단 고문
- ◆ 한국여성정보원 이사
- ◆ LG 건설 사외이사
- ◆ 아름다운재단 이사
- ◆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 청년세계탐구단 이사
- ◆ 한국협상협회 이사

학술 활동 :

- 미국 계획교육협회 학술지(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편집위원장
- 국제 도시과학학술지(Journal of Urban Arts and Sciences) 편집위원 (현)
- 환경영향평가학술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편집국제자문위원(현)
- 국제한국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자문위원 (현)

초빙교수 :

- 북경대학교(북경, 중국, 1998)
- 국립대만대학교(타이베이, 대만, 1996)
- 국립서울대학교(서울, 한국, 1988)

저술 :

- 21세기의 도전, 나남출판사, 2001, 2003
- 북한의 식량문제: 실태와 대책, 한울 출판사, 한글판 2000, 영문판 2003
- 미래를 위한 인간적 계획론, 나남출판사, 1995, 1997

세계적 대학을 위한 전략(Stratgy for A Global University), MSU, 1995, 2003  
 사회주의 중국의 주택정책, 나남출판사, 1993  
 및 국가발전 전략계획, 지역개발, 주택, 환경, 국제교육에 관한 논문 다수

## 2. 사망관련 기사

[부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임길진 교수 교통사고로 타계  
 2005.02.1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임길진 교수 교통사고로 타계

임길진(林吉鎭)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9일 오후 8시57분(미국 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에서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향년 59세. 해방 직후인 1946년 서울 신촌에서 태어난 임 공동대표는 평생을 도시계획학 연구와 환경운동에 매진했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도시계획학 석사와 프린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를 거쳐 지난 91년부터 5년간 미시간 주립대 국제대학장을 맡았으며, 이후 이 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2003년 최열, 신인령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 시민단체의 세계화와 선진 도시계획학의 국내 전파 등에 열의를 보여 왔다. 특히 2002년에는 주거복지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어린이 인터넷 보급운동인 '키드넷' 운동을 주도했다. 미국에서 강의를 맡는 동안에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1년에 서너 달 정도는 국내를 방문할 정도로 학계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병행해왔다. 이날 교통사고로 타계할 때까지도 미혼인 임 공동대표에 대해 주변에서는 "일과 결혼했다"고 평했을 정도. 때문에 평소 "나는 아직도 청년이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늙을 시간이 없다"며 개인의 일신보다는 사회운동에 열의를 보인 고인의 이날 갑작스런 타계 소식에 국내 시민운동계와 학계에서는 "큰 별이 졌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법무법인 남산의 대표 임동진 변호사가 고인의 형이며,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가 친동생이다.

### □ 장례관련 일정

- 미국 현지 일정
  - 미국 현지시간 13일 오후 3시(한국시간 14일 새벽 1시)에 이스트랜싱에 있는 골스라인 퓨너럴 홈 장례식장에서 웨이크서비스(고인을 산자처럼 화장도 하고 웃도 입히고 꾸며서 관에 눕혀 조문객 맞는 의식) 예정
  - 국내 유해 도착 일시= 2월 16일(수) 오후 4시 인천공항 예정
  - 미국 미시간 랜싱에서 2월 15일 화요일 오전 출발 -> 시카고 경유 12:00 -> 인천공항 16일 수요일 오후 4시 도착예정
  - 빈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예정
  - 발인= 2005년 2월 18일(금) 예정
  - 연락처
    - (해외) 미국 미시간 현지 전화: 517-336-0018/ 517-862-7686 김태중
    - (국내) 김혜정(환경연합 처장 011-413-1260, 김미현국장 011-9069-3487)
    - 이만형(개발연구협의체사무총장 019-9402-2369)

## 한겨레

편집 2005.02.11(금) 01:00

환경운동연합 임길진 대표 미국서 교통사고로 숨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임길진(59) 미국 미시간주립대 석좌교수가 9일 교통사고로 숨졌다. 임박사는 이날 낮 2시께 미국 미시간주 랜싱 시내 한 식당에서 일행들과 점심을 마친 뒤 혼자 차를 몰고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왼쪽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9시께 숨졌다고 한 지인이 전했다. 임박사의 미국내 영결식은 오는 12일 랜싱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리며 곧 한국내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될 예정이다. 임박사는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서 계획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일리노이 주립대, 미시간 주립대에서 지리학과 및 도시계획학과교수를 지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석좌교수 겸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임박사는 또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국부패학회 회장 등을 맡고, 미시간 주립대에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미국 연락처 517-862-7686, 517-256-0862

### 재외동포신문 기사

13일 오후 미국 미시간주 랜싱 시내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고 임길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영결식은 그를 사랑한 한국인과 미국인 조문객 800여명의 애도와 통곡속에 치러졌다. 미국 전 지역과 캐나다에서 찾아온 조문객들로 영결식장은 발디딜 틈이 없었으며, 조화도 50여개나 들어섰다. 미시간 주립대의 존 허직 수석 부총장, 마이클 밀러 국제교류국장, 교민 등 차례로 추도사가 있었다. 부총장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에게 세계 평화와 환경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제시했던 위대한 한국인을 잃었다"고 추모했으며, 밀러 국장은

임박사가 창설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실무 책임자로서 임박사와 함께 지낸 추억들을 되새기며 오열했다. 한 태권도 사범은 임박사의 격려에 힘입어 도장을 하나에서 15개로 늘릴 수 있었다고 회고했고, 한 교민은 미국 땅에서 존재가 미미했던 교포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줬다고 칭송했다.

임박사의 타계 소식은 랜싱 스테이트 저널, 미시간 주립대학 신문 등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사이몬 미시간 주립대 총장은 인터뷰에서 "임 박사는 강한 지도자였으며, 우리는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임박사가 특히 미시간 지역 한인 사회의 지도자였고 미시간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이 글은 재외동포신문(임길진박사 영결식..한·미 양국 조문객들 오열, 2005.02.17.)에 실렸던 기사이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때문에 본인이 축약 정리해서 실었음

### 3. 몽골과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 및 제자들이 올린 추모글

임길진 박사는 1946년 11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1973년 도미, Harvard University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했다. 박사학위는 1978년 Princeton University서 받고 그해University of Northwestern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 뒤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연구활동 하였고,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계획분야의 석학으로 명성을 날렸다. 더 나아가 1991년 Michigan State University, 지리 및 도시계획학과 교수 겸 국제대학(International Studies and Programs)의 학장 자리에 올랐다. 외국인으로 최연소 학장이었다. 이후 1998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초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및 석좌교수를 맡아, 글로벌대학으로의 토대를 만들었다.

임길진 박사는 학자로서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보는 혜안과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실천하는 지성인이었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이 익숙하지 않은 1987년, 임길진박사는 개발연구협의체(CODS: Consortium on Development Studies)를 만들었다. '인간. 자연. 기술의 조화'를 모토로 하는 CODS의 궁극적 관심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었다. 또한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개별국가만이 아닌 전세계로 확산 되기를 염원하면서 1995년에 인간적 세계화연구회(Program on Humanistic Globalization)를 창립,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갈등과 폭력 등에 대해 상호주관적 관점에서 세계인의 이념정립과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는 2005년 2월 9일 미국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의 한교차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미국 국방성, 세계은행 자문위원에서 환경운동연합 대표까지 시공을 초월하고 극과극을 넘나들던 그의 활동은 이렇게 아쉽게 마감 되고 만다.

하지만 우리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의 지속가능한 인간적 발전을 염원했던 폭넓은 비전

과 해안, 실천하는 지성인의 정신은 그와 연을 맺은 많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모통이 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여기 몽골과 중앙아시아에서 인간적 지역화(Humanistic regionalization)를 품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살아있다.

#### 4. 이윤기 소설가.번역가의 추모글: 고인을 기리며



1991년 6월 6일 오후 1시, 나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대학의 한국인 학장을 만나게 되어 있었다. 서울대에서 학사, 미국 명문 하버드대에서 석사, 역시 명문인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라고 했다. 한국 여권을 지닌 최초의 미국 주립대학교 학장이라고 했다.

호텔 밖은 몹시 더웠다. 하지만 나는 준비해간 양복, 그것도 두꺼운 춘추복으로 정장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학장 댁으로 갔다. 반바지 차림의 한국 학생 서넛이 뜰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나이가 좀 든 학생도 있었다. 그 학생의 반바지 길이는 거의 수영복 수준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용무를 말하고는, 쏟아지는 땀을 닦으면서 뜰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학장 비슷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다. 서재 문이 열리면서, 나비 넥타이로 정장한, 점잖은 학자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그가 영어로 말을 걸 것인지, 한국어로 말을 걸 것인지 그것도 견딜 수 없이 궁금했다. 영어로 말을 걸면 나는 망한다, 제발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었으면... 거의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밖에서 고기를 굽던, 반바지 차림의, 예의 그 나이 든 학생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악수를 청하고는 손을 내미는 나를 끌어 덥석 껴안더니 조금도 미국화하지 않은 한국어로 말했다. “가벼운 차림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네요. 양아치 임길진입니다.” 그 자칭 양아치가 바로 한국인 학장 임길진 박사였다. 당시 내 나이 45세, 그의 나이 46세였다. 소탈하다기보다는 탈속한 듯한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해 여름부터 5년 동안 나는 배우고 또 익히면서, 완전히 세계화한 이 한국인, 완전히 한국화한 이 세계인 스승의 걸을 맴돌았다. 미국 부통령과 너나들이를 하고, 주지사의 어깨를 중심이 무너지게 칠 수 있을 만큼 미국인들과 가까웠어도, 그는 끝내 한국인이었다. 그는 미국 대학의 행정가일때는 증오처럼 강경했고, 조선 선비일 때는 오래된 술처럼 순후했다. 그는 도시계획학 학자이기도 했고 한국어로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했다. 그는 시를 쓰되 한글로는 물론이고, 한문으로도 쓰고, 영어로도 썼다. 그는 문인화를 습작하는 아마추어 화가이자, 판소리를 애호하는 귀명창이자, 태권도 고단자이기도 한 토종 한국인이었다. 미국의 한국인들에게 하던 그의 공격적인 제안이 귀에 쟁쟁하다. “...유학생들이나 연구원들로부터, 아들딸에게 영어만 가르쳐야 하느냐, 한국어도 가르쳐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요. 다 가르치세요. 왜 한 가지만 가르쳐요? 힘이 남으면 일본어와 중국어도 가르치세요. 프랑스어도 가르치고 독일어도 가르치세요. 미국 와서까지 김치와 고추장 타령 하려거든 다 틀렸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김치 타령도 하고, 햄버거 타령도 하세요. 그리고 이곳은 미국이니깐 무엇보다도 영어로 말하세요. 컴퓨터를 배우세요. 영어와 컴퓨터 모르고는 반미도 안 됩니다. 배우세요, 안 되면 죽어버리세요....”

독신이었던 그는 술과 담배도 즐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즐기는 것은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다. 담배도 더러는 내 것을 빼앗아 피웠다. 중독되면 어찌게요 하고 내가 걱정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집착하지 않으니 해탈할 일도 없을거요.”

새 세기 들어서는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가 되어, 조국의 환경운동까지 혼수하던 그의 부음(訃音)을 그제 들었다. 우리가 즐겨 다니던 음식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아, 학장님, 학장님, 우리 학장님.

▲이 글은 조선일보 2월 11일자([문화비전] 학장님, 학장님, 우리학장님)에 실린 기사입니다.

## 5. 17주기 추도식

故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초대이사장) 제17주기 추도식



2022년 2월 10일, 천안공원(무학지구) 장미17단 22호에서 주거복지연대 초대 이사장 故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17기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http://www.home1004.or.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1579](http://www.home1004.or.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1579)

[출처]故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초대이사장) 제17주기 추도식|작성자치행복홍보단



지난 2월 10일, 주거복지연대 초대 이사장 故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17기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천안공원(무학지구) 장미17단 22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용을 연출가가 사회자를 맡아 진행됐으며,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이사장, 황기룡 사무총장, 고대연 간사, 윤효석 사원, 서울서부지사 김종윤 지사장, 박영수 사무국장, 서울남부지사 최진규 지사장, 고양시지부 최백규 지부장, 경기남부지사 이석훈 지사장, 백연옥 사무국장, 최은희 실장, 이용면 후원회원, 인천지사 이광호 부지사장, 양선주 사무국장, 최광춘 지부장, 이춘근 지부장, 인천서구지부 조성직 지부장, 고연실 부회장, 이덕례 후원회원, 심승순 후원회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前이사장, 서울대학교 임현진 명예교수, 조종건 목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한수 전문위원,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허정혜 선임PD, 임길진NGO 스쿨 성종현 담당PD 등 30여명이 참석해 임길진 박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상오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주거복지연대는 현재 지역을 기반한 활동을 많이 기획하고 회원을 열심히 모집하고 있다"며 "비영리활동만 하지 않고, 비영리활동을 만드는 지사지부를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연계해 생활의 안정까지 지속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창립 당시 임길진 박사는 '구각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롭게 혁신하는 시민활동'을 강조했다"며 "그 분의 유지를 이어받아 시민단체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임길진 박사 17주기 추모식 기도문>

조종건 전 한국부패학회 사무국장, 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

생과 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2천여 년 전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별은 인류에게 “왜 사느냐?”라는 존재 이유를 물게 했고, 소유로 압도된 오늘의 정글사회에서 평사 임길진 박사와의 만남은 ‘인간적 세계화’를 물게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sustainable civil society)를 실천하기 위한 그의 인간적 세계화 통찰(비전<sup>1)</sup>)은 어둠 속에 등대였습니다. 도시계획, 주거복지, 친환경, 정의사회, 윤리경영, 교육 등은 그가 인간적 세계화를 반영하고자 사투를 벌인 곳이며 그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17주년이지만 그가 남긴 ‘행동하는 지식인’의 잔향이 여전한 것은 그 사람의 크기인가 봅니다.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늘 그리운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진정 평사는 인간적 세계화를 실천한 참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목격한 이들과 그 지인들이 모여 그를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상류사회의 의무 실종은 여전하고, 자기 중심 사회의 여진은 한국사회를 거짓과 횡포의 절벽사회로 몰았습니다. 이런 정글사회에서 이웃 간 진실은 동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큼니다.

14년 전 평사추모 기도문을 보니 “사회적 가치는 시효 잃은 공문서가 되고, 빈부격차에 대한 지도층의 무관심은 사회의 암적 요인이 되고, 서민층은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노숙자들의 친구<sup>2)</sup>가 되려고 했던 당신의 아들 임길진 박사의 진정성은 더욱 아른거립니다.” “1987년에도 그는 틈만 나면 서울의 빈민촌을 방문하여 그곳에 사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진지하게 들었고, 작지만 있는 것을 나누기도 했(습니)다.”<sup>3)</sup>

여기 모인 이들이 그가 고뇌했던 사회적 가치를 다시 지필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만 있지 시민이 실종된 사회현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인간적 세계화를 지필 수 있게 도우소서. 삶의 해안과 연대의 아름다움을 통해 17년 만에 만들어지는 ‘인간적세계화포럼’이 세계시민양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변화의 나비효과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1) 비전(혜안)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보고 그곳으로 가는 항로를 설계한다. 임길진, 『21세기의 도전, 계획과 전략』, 서울: 나남출판, 2003, 21쪽.  
 2) 2004년 12월 어느 겨울날 임길진 회장은 서울역 노숙 현장에서 노숙 체험을 함.  
 3) 김정호, 『가장 인간답기에, 가장 순수했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사 임길진 박사 추모금 모음 크게 넓게 내다보고』,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6, 56쪽.

<주요내빈 인사말씀>

조종건 목사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지만 평시에는 사상가·전략가·활동가가 필요하다. 임길진 박사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일찍이 그 역량을 뛰어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이뤄낸 통찰과 통섭의 인물이다. 우리 모두 임길진 박사의 철학과 실천적 지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前이사장

"임길진 박사의 사상과 철학 등이 담긴 뇌를 스캔 받거나 저장장치에 담아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아쉬울 뿐이다."

김용을 연출가

"아프리카의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18년전에 초대형 국립도서관 하나를 변변한 기록 하나 없이 불태워 버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故 임길진 박사의 친동생)

이제 그만.. 오지들 말라니까 자꾸들와! 먼~길 오시느라 시장들하실테니까.. 많이들 드시고 가! 아주머니 여기 소주한병이요~!!

미소하고 화내지 마라  
숨기지도 뽐내지도 마라  
기쁜마음으로 살고 중오하지 마라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하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개선하라  
나의 지식이 적다는 것을 알고 남에게서 배우라  
남의 조언을 구하되 결정은 자기의 가치관에 의존하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친구처럼 똑같이 대하라  
옛것과 새것을 함께 소중히 하라  
아는 것을 실천하라  
모든 것을 사랑하라  
계속하라.

박사(平士) 임길진 박사  
(1946-2025)




故 임길진 초대이사장 17주과

## 살전 자식의 표상

'양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故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초대이사장)  
제17주기 추모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22. 02. 10(목) 11:00  
장소 : 천안공원 장미17단지 22호

(사)주거복지연대  
JWFC 2021, Glenn for Shared Housing

## 임길진 초대이사장 17주기 추도식

주거복지연대와 환경운동연합, 한국부패학회,  
개발연구협의체(CODS) 등 생전에 계실 때 당신이  
관여하신 단체나 기관이 수심여 곳이 넘습니다.

교수로서 석학으로서, 그리고 실천하는 지성으로서  
다양하고도 폭 넓은 사회활동을 전개하신 분,  
17년전 태산같은 할일을 후학들에게 남겨 놓은 채  
끝내 우리 곁을 떠나셨던 임길진박사님.

당신이 서럽도록 그리고 그리워  
이 자리에 함께 섰나이다.

### (平士) 임길진박사가 걸어오신 길 - 17주기 추도식 약력보고 -

- ▶ 1946년 서울시 마포구 출생
- ▶ 1959년 서울 수송초등학교 졸업
- ▶ 1965년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 ▶ 1969년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서울대 총장상 수상)
- ▶ 서울대학교 ROTC 7기 임관(건설공병단 소대장 근무)
- ▶ 1973년 하버드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 ▶ 1978년 프린스턴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학위 취득
- ▶ 1980년 프린스턴대학교 주임교수 역임
- ▶ 1980년 개발연구협의체(CODS)의 전신인 <개발도상국 도시지역 정책협의체> 결성(제1차 국제회의를 성공리에 개최)
- ▶ 1991년 동양인 최초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대학 학장 역임  
미시간주립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역임
- ▶ 1996년 대만대학교 초청교수
- ▶ 1997년 연변과기대 객원교수
- ▶ 1996년 북경대학교 초청교수
- ▶ 1993년 환경운동연합 창립초기부터 제1호 평생회원으로 활동  
2000년초부터 공동대표 추대되어 국제연대활동 주선
- ▶ 2001년 1월부터 380만 무주택서민가구와 180만 불량주택 거주  
민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며 설립된 주거복지연대의  
초대 이사장 겸 공동대표를 맡아 “향후 10년 안에 모든 국민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하며 오늘의  
주거복지연대를 안정된 토대위에 올려 놓는 데에 커다란 발자취  
를 남기셨습니다.

## 식 순

사회: 김용을 연출가

- 개회선언(10:30)
- 헌화(국화 개별헌화)
- 약력보고 ----- 사회자
- 일동묵념 ----- 사회자
- 추모기도 ----- 조종건 평택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한국부패학회 (전)사무총장
- 추모사 -----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 임박사님을 회고하며(1)
- 임박사님을 회고하며(2)
- 임박사님을 회고하며(3)
- 폐회(11:20)

## 6. 나와 함께 했던 MSU 관련 시간들

### 1. 92년 MSU 남북한 세미나



▲ 남북한 세미나, 북한학자와 임길진 학장



▲ 북한 학자들, 남한 학자들, 미주교포들과 함께 간담회를 치렀고, 맨 오른쪽에서 있는 분이 문재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냈던 문정인(그 당시 켄터키대 교수) 교수다.



▲ 유학생 및 교민들과 함께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분이 이후 남북한 6자 회담에서 북한 대표를 맡았던 이근 북한대표이다.



▲ 남북한 세미나 당시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한 통일연구원장 서재진 원장이 발표하셨고, 옆에 앉아있는 분이 유명한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로버트 스칼라피노 종신명예교수이다.

### 2. 졸업식



▲ 박정근 박사학위 졸업식 때 임길진 학장님과 함께

3. MSU한국총동창회 동문가족 한마당



▲ 임학장님과 오성식 영어연구원 대표



▲ MSU 한국총동창회 동문가족 한마당



▲ 왼쪽부터 학장님, 신국범 전 교원대, 광주대, 대전대 총장님, 남영우 MSU 한국총동창회장



▲ 가운데 임학장님

## 7. 관련 기사들(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초대원장)

대한민국의 싱크 탱크(Think-tank)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KDI School)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대학원대학으로 1998년 3월 개원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개발 경제 및 공공 정책 분야에서 이론 지식과 실무 기술을 갖춘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대학알리미에는 설립 유형이 사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법법인'이다. 초대 원장은 임길진박사이다.

## 8. 관련 기사들(키드넷 운동의 선구자)

[한국 인터넷 대중화 20년](1) 정보화 운동의 주역, 안병훈 서재필기념회재단 이사장  
류현정 기자  
입력2014.06.16 15:00 | 수정 2014.06.16 15:52

- 1995년 '정보화 앞서가자'에 이어 1996년 초등학생에게 인터넷과 컴퓨터를 가르치는 키드넷(KidNet) 운동도 펼쳤습니다.

"그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후 1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밑으로부터의 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편집국에 있었어요.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젊은 기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지요. 특히 미시간대 임길진 박사도 어린이에 대한 인터넷 교육 운동 아이디어를 들고와서 키드넷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일이 계기가 돼 우리도 어린이에게 인터넷을 배우게 하자, 키드넷 운동을 그해 3월부터 펼치게 됐습니다.

1996년 5월에 존 게이지(선마이크로시스템즈 창업자중 한명)라는 사람을 초청해 강연을 했었어요. 존 게이지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에게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넷데이(Netday)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

- 키드넷 운동은 한국의 인터넷 대중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전국 36개 초등학교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대화를 하도록 시도한 것입니다. 한미 초등학교 인터넷 자매결연 시범행사를 서울 한양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초등학교에 인터넷 전용회선은 전혀 없었고 전화밖에 없었습니다. 전화선도 교장실이 하나, 교무실에 하나 등 두 개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에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화선 하나를 사용하면 선생님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사 도움을 받아 키드넷 참여학교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해줬습니다. 또 영어를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도 붙였습니다. 또 학교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나눠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출신 초등학교(경남 거제)에 컴퓨터 살 돈을 냈어요.”

## 9. 관련 기사들(MSU VIPP)

박정근 설명: MSU VIPP는 전세계 전문가들이 연수하는 비학위과정임. 임길진 학장에 의해 설립된 과정으로 30여개국 4000여명의 전문가들이 VIPP를 이수하였음. 한국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1년간 연수한 곳으로 유명하다.

The Visiting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ogram (VIPP)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MSU) provides cutting-edge training and exchange programs f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 by leveraging the academic excellence of a top global research university.

As your trusted partn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in the United States, we provide transformative learning experiences by connecting people, cultures, knowledge, and ideas.

### History of the Visiting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ogram

Founded in 1991, VIPP has trained over 4,000 professionals from 30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Japan, Mongolia, Thailand, Malaysia, Vietnam, Russia, Brazil, Saudi Arabia, Libya, Turkey, and many more.



VIPP is the brainchild of Dr. Gill-Chin Lim, the former Dea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Programs at MSU. Dr. Lim recognized the need for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to have access to MSU's diverse educational resources. To fill that need, Dr. Lim developed VIPP as a non-degre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Dr. Gill-Chin Lim in a classroom with several of his students.

출처: MSU VIPP 홈페이지

## 10. 관련 기사들(재외한민족협회 준비위원장)

재외한민족협회 준비위원장 임길진

입력 2006.04.02 11:13수정 2006.04.02. 11:15

700만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재외한민족협회(가칭) 준비모임 공동위원장인 임길진(林吉鎭.58) 교수는 2일 "재외 교포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여할수 있는 전세계적인 교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한 임 교수는 현재 미국 미시간주립대 (MSU) 계획학과 교수겸 석좌교수를 맡고 있으며 환경, 통일 문제와 관련한다양한 사회 활동을 해왔다.다음은 임 교수와의 전화인터뷰 요지.

-- 세계재외한민족협회를 발족하려는 동기는.

▲ 10여년전부터 미국의 나이든 교포분들로부터 700만 동포가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게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어왔다. 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는 적지 않은 교포들이 '내가 미국인인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러한 교포들이 서로 하나가 돼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통일과 한민족을 위해 이바지할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협회를 만들기로 했다.

-- 협회의 향후 활동 내용은.

▲ 먼저 재외 동포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를 위해 후세들의 장학금 지원과 후진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교육, 문화 사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셋째로 한국과 세계 공동체간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 지원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넷째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 과정에 공헌하는 것이다.

-- 향후 협회 운영 자금과 조직은.

▲ 광복 60주년을 맞는 내년 10월 협회 창립 총회때 1천명의 창립회원을 갖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은 해외 교포및 유학생들을 정회원, 우리 협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내국인들을 준회원으로 정했으며, 정회원의 경우 1천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내도록 권하고 있다. 창립 총회때 까지 2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할 생각이다. 조직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모두 10개 지부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분포된 한인회와의 유대는 어떻게 되는가.

▲ 모든 교포들에게 문화가 개방돼 있다. 이미 준비 위원회 위원 50명중 여러지역의 한인회 회장들이 포함돼 있다.

-- 회원들이 돈을 내면서 활동을 하려 하겠는가.

▲ 기존의 교포 조직과 우리가 만들려는 협회가 다른 점이 그것이다. 우리는 봉사를 목적으로 한 순수한 모임이다. 참여 자체에서 보람을 찾아야지, 협회를 통해보상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순수한 뜻을 가진 교포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미 많은 분들이 1천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내거나 서약을 했다.

-- 평화 통일 운동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 우리 교포들은 일제시대에는 독립 운동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창출해 냈고해방이후 독재 정권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족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제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공헌할 때다. 우리는 이념적으로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남북간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을 자임한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 11. 관련 기사들(교육실패는 미래 한국의 재앙)

23회 건축공학과 서울대

중앙일보기사-"교육실패는 미래 한국의 재앙" 11월28일

by강명원 블로그

2003/11/28 23:25

제목과 내용이 내 마음에 들어서 옮겨봅니다.

우리 나라 교육 "이대로는 정말 걱정입니다."교육계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 다음 글은 너무도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교육 실패는 미래 한국의 재앙"在美 원로학자 7명 정부에 공개 서한  
"범국민개혁기구 만들라" 특단 조치 촉구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을 일궈온 재미 한국계 학자들이 27일 한국 교육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채택했다. 국내의 공교육 붕괴 현상을 보다 못해 재미학자들까지 나선 것이다.

서한 작성엔 재미한인학자협회 소속 전·현직 학자들이 참여했다. 유혁(71.위스콘신대 화학과).한무영(58.듀크대 물리학).임길진(56.미시간주립대 도시계획학).장석정(54.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교수 등 7명은 그동안 서로 e-메일 등을 통해 한국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영문과 국문으로 공개서한을 작성해 이날 국내 언론기관 등에 보내왔다.

이들은 "현재 한국 교육이 한국인의 저력과 가능성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총체적 위상을 높이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가정이 사교육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느라 엄청난 심리적·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 조국을 등지는 이산가족까지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 교육은 사회에 보탬을 주는 시민을 육성하는 데 철저히 실패했으며, 자신의 맹목적 야심만 좇는 지식계급만 생산해왔다"며 "교육의 실패는 미래 한국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미학자들은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국가차원의 범국민기구를 설치해 교육개혁을 위한 거국적이고 총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연륜과 경험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개서한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교수는 "한국의 파행적 교육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데 재미 원로학자들이 생각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참가 교수들은 미국 내 과학기술계 등의 대가들이다.

유교수는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고분자의 구조와 동력학의 탁월한 연구로 전세계 과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1997년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호암상을 수상했다.

한교수도 물리학 이론분야에 자주 인용되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임교수는 9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소속 국제정책대학원 초대 학장을 역임했다.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2003.11.27 18:08 입력 / 2003.11.28 08:33 수정

## 12. 관련 기사들(소설가 이윤기님에서 발췌)

Jay 2006. 10. 17. 02:09

<http://blog.daum.net/jaylee/8577907>

임길진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사,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시간 주립대학 국제학부의 학장을 역임했다. 한국 여권을 지닌 최초의 미국 주립대학 학장이었다.

미국 부통령과 야!자!를 하고 주지사의 어깨를 중심이 무너지게 칠 수 있을만큼 미국인들과 가까웠어도 그는 끝내 한국인이었다. 그는 미국 대학의 행정가 일때는 강경했고, 조선 선비일때는 오래된 술처럼 순후했다. 그는 도시 계획학 학자이기도 했고 한국어로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그는 시를 쓰되 한글로는 물론이고, 한문으로도 쓰고, 영어로도 썼다. 그는 문인화를 습작하는 아마추어 화가이자, 판소리를 애호하는 귀명창이자, 태권도 고단자이기도 했던 토종 한국인이었다. 미국의 한국인들에게 하던 그의 공격적인 제안이 귀에 쟁쟁하다.

- 유학생들이나 연구원들로 부터 아들,딸에게 영어만 가르쳐야 하느냐, 한국어도 가르쳐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요. 다 가르 치세요. 왜 한가지만 가르쳐요? 힘이 남으면 일본어와 중국어도 가르치세요.

미국 와서까지 김치와 고추장 타령 하려거든 다 틀렸으니까 한국으로 돌아 가세요. 김치 타령도 하고 햄버거 타령도 하세요. 그리고 이곳은 미국이니까 무엇 보다도 영어로 말하세요. 컴퓨터를 배우세요. 영어와 컴퓨터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

....배우세요. 안되면 죽어 버리세요.....!

독신이었던 그는 술과 담배도 즐기지 않았다. 하지만 남이 즐기는 것은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죽기전 이런 말을 남겼다.

- 나는 집착하지 않으니 해탈할 일도 없을 거요.  
(소설가며 번역가인 이윤기님 글에서 발췌)

### 13. 미국 최초의 한국인 학장은 임길진 학장, 그 이후 강성모, 고흥주 학장

#### 해외 학계를 주름잡는 한국인

2014. 1. 22. 12:40

교양있는삶/사실 노트

첫 한국인 아이비리그 총장 탄생, UC 총장·에일대 학장도 배출. 실력과 성과 위주, 다른분야보다 소수민족 차별 덜한 곳이 바로 학계.

지난 3월 2일, 美(미) 학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 있었다. 아이비리그(미 동부지역 8개 명문대학교로, 브라운·컬럼비아·코넬·프린스턴·하버드·에일·다트머스·펜실베이니아를 뜻함) 중 하나인 다트머스大(대) 신임 총장으로 한국인 金墉(김용·미국명 Jim Yong Kim) 하버드대 의대 국제보건·사회의학과장이 임명된 것. 한국인으로서는 물론 아시아인 최초로 아이비리그 총장이 된 것이다.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사고'도 뒤따랐다. 학내 동아리의 일부 학생이 김 총장 선출 다음 날 재학생과 졸업생 1000여 명에게 '김 내정자가 학교를 아시아化(화)할 것이며, 다트머스는

미국이지 중국 식당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 다트머스대 화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양윤희(35)씨는 "다트머스는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할 정도로 학생과 교직원 대부분이 백인 상류층인 곳"이라고 귀띔했다.

이 사건은 이메일을 보낸 학생들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됐지만, 어쨌든 노벨상(평화상 제외) 수상자 한 번 내지 못할 정도로 학계에서는 '邊邦(변방)'에 가까운 한국이 전 세계의 상아탑과도 같은 아이비리그의 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은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국내외의 일부 학자들은 "김 신임 총장의 업적과 성과가 탁월했던 이유도 있지만, 미국 학계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4년제 대학에 한국인 총장이 임명된 일이 있었을까. 지난 2007년 3월 姜城模(강성모·64) UC(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타크루즈 공대 학장이 같은 UC 계열인 UC머시드 총장이 된 것이 최초다. 한국인이 미 명문대 학장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 高洪株(고홍주·55) 예일대 법대 교수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기 5년의 법대 학장職(직)을 맡고 있으며, 故(고) 林吉鎭(임길진) 前(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미시간주립대 국제학장(1991~1995)을 역임했다.

출처:<https://getupandgo.tistory.com/1002>[:]

## 14. 관련 기사들(임길진 칼럼)

[2003/10] 임길진 칼럼 3

임길진 칼럼 3

협상의 기술

분쟁이 도처에서 계속된다. 중동·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남북 대치, 한국 사회의 노사분규와 국회의 육탄전 또한 연일 계속된다. 모두가 주문처럼 외치는 평화와 대화는 다 어디 가고 대립과 폭력만이 난무하는가? 분쟁 없는 사회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명의 피해와 물리적 비용을 줄이면서 분쟁을 해결하는가"이다. 인류 역사에서 자주 사용된 분쟁 해결법은 무력이다. 우세한 무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타자의 강요대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이러한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개인은 불행하게 되고 조직의 화합은 약화된다. 반면 제도적 분쟁 해결법도 있다. 우선 정치적 정책 형성과정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이 성공하려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들이 규칙을 공개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분쟁 해결법은 투표다. 투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등 대표자 선거에 주로 사용된다. 또 투표는 대의원회, 이사회, 주주총회, 각종위원회 등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분쟁 해결법이다.

투표가 지닌 근본적 문제는 그 대표성이다. 소수의 유권자가 지지한 결과 당선된 지도자는 정통성을 주장하거나 꾸준하고 안정된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통치에 난관이 많게 된다. 법정투쟁은 민주사회의 마지막 분쟁 해결의 수단이다. 사법부에 결정을 맡기면 사실을

검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협상과 중재를 들 수 있다. 협상은 당사자들만 참가하는 것이고, 중재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다. 협상과 중재는 많은 분쟁 해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불행히도 한국 주요 사회행위의 참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협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입장에 근거한 대결과 불투명한 막후협상 등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를 운영해 왔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주요 사회행위 참여자들과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협상의 기본적 원칙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협상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대한 협상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 △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 인신공격을 피하고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 △ 분쟁 당사자들은 얼굴주의나 입장주의를 버리고 상호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 감정적인 판단을 버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 새로운 대안을 계속 만들어 내야 한다. 다툼과 무력에 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는 세상을 만들자.

임길진 [limg@msu.edu](mailto:limg@msu.edu)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국 미시간주립대 및 한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좌교수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12 23:13)

## 15. 관련 기사들(임길진NGO스쿨, 임길진 환경상)

임길진NGO스쿨,[시민사회 리더십 과정] 수강생 모집 | 인천환경

임길진 환경상

국내 환경운동의 초석을 다진 고(故) 임길진 박사(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된 상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된다. 임길진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미시간주립대 학장을 지내고 생태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수상자 선정은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한다. 심사는 임길진환경상심사위원회(위원장지영선 생명의숲 공동대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임길진 환경상(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환경재단에서 임길진 NGO 스쿨을 운영하고 있음.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풀뿌리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집요강]

- \* 시상부분 및 내용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차 : 최종심사
-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alahan@kfem.or.kr)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다운로드 할 수 있음.

[일정]

- 접수마감 3/6(금) 우편접수시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시상식 4/2(목)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 김보영 국장(alahan@kfem.or.kr/ 02-735-7000 (내선 301) )

\*참고<임길진 환경상 역대 수상자>

- 2013년 제1회박미경 정책기획위원 (광주환경연합) / 특별상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 2014년 제2회박성률 목사 (강원도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2015년 제3회정수근 처장 (대구환경연합)
- 2016년 제4회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특별상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
- 2017년 제5회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강원행동
- 2018년 제6회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전의장(현 고문/운영위원)
- 2019년 제7회월성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출처][공지]제8회 임길진환경상 후보자 공모(3/6 서류마감)작성자 환경운동연합

## 16. 관련 기사들(주거복지연대 임길진룸)

주거복지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김요섭 본부장)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매입임대 공가 2호가 수리 완료되어 인근 평택대학교 재학생 김00(25·사회복지학과 3학년) 군과 민00(27·사회복지학과 4학년) 군이 입주를 완료하였다.

민간 비영리단체가 나와 협업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다.

주거복지연대는 평택대학교 학생처와 사전 협의 후 평택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주거복지연대에서 2월 27일 면접을 거쳐 3월 4일 입주자를 발표하고 입주를 진행하였다.

입주 대상은 통학 거리가 멀고 학교인근에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학생들로 심사항목은 통학 거리, 장학금(성적), 자원봉사활동 등 서류행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었다.

면접은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이사장, LH강남주거복지센터 배문호 박사, 평택에 위치한 시민사회재단 조종건 공동대표, 희망하우징 강혜경 대표, 주거복지연대 수원지부 이석훈 지부장 등이 참석해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면접 후 강혜경 대표는 “학생들의 간절한 주거요청을 느꼈다. 선발은 정말 힘들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문호 박사도 “정말 좋은 모델이다 LH와 주거복지연대가 이런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LH경기본부와 주거복지연대의 활동을 독려했다.

남상오 이사장은 “‘임길진룸’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니 주택 안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의 절실함을 확인했다. 필요성과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으니 올해는 계획보다 더 확대할 예정이다. 평택에도 1주택을 더 진행하고 서울권에 1주택 이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복지연대는 2019년 LH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2차에 걸쳐 공급 곤란 주택을 무상 공급받은 바 있다.

## 17. 관련 기사들(임길진 글로벌상)

[Gill-Chin Lim Global Award](#)

Application Deadline: September 15, 2018

In recognition of Gill-Chin Lim’s commitment to humanistic globalization, we seek nominees for the fourth Gill-Chin Lim Global Award. Humanistic globalization seeks to realize a civil society based on human values and the basic human needs essential to sustain a just society.

These human values are identified as: peace; love; justice; affluence and equality. The basic human needs are: food; security; housing; health and education. The personal qualities one needs in order to realize the ends of humanistic globalization are: optimism and the determination to surmount all obstacles and threats to the attainment of these ends; eagerness and openness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and their ways of thinking; and pursuit of education as the critical way to enable those around us to shed old behaviors and learn and practice needed reforms.

By participating in voluntary services and public decision-making (e.g., voting), we can

act to contribute to needed reforms. By respecting each other and engaging people different from ourselves, we may learn from those differences and at the same time experience what we share in common – especially the basic human values and basic human needs.

The Award carries a cash grant of \$10,000 supported by Dr. Gill-Chin Lim's family.

#### Nomination Process

Nominations for the Gill-Chin Lim Global Award must include:

A nominating cover letter that states the ways in which the nominee has enhanced humanistic globalization. Curriculum vitae.

Two letters of support from individuals who are familiar with the nominee's contributions to humanistic globalization. Additional supporting documents may be provided as well. Nominations (electronic submissions, please) should be sent no later than September 15, 2018, to BOTH:

Dr. Mark Wilson  
Chair, Dr. Gill-Chin Lim Global Award Committee Professor  
School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Human Ecology Building  
552 W. Circle Drive, Room 101  
East Lansing, MI 48824 USA  
Tel: (517) 353-9054  
Fax: (509) 472-8102  
E-mail:wilsonmm@msu.edu

AND

Dr. Man-Hyung Lee  
Secretary General, Consortium on Development Studies  
And  
Dean of Planning and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Tel: 82-43-261-2369, 82-10-7623-2369  
Fax: 82-43-276-2369  
E-mail:manlee@chungbuk.ac.kr

## 18. 관련 기사들(ACSP/GPEIG 국제계획에 관한 임길진 박사논문상)

공식명칭: The ACSP/GPEIG Gill-Chin Lim Award for the Best Dissertation on International Planning

ACSP는 계획을 전공하는 100개 이상되는 대학 학과나 전공의 컨소시움 단체이다. 교수, 은퇴교수, 학생들로 구성되어있다. 컨소시움내에 다양한 흥미단체들이 있다. 그 중에서 Global Planning Educators Interest Group에서 임길진 논문상을 제정했다.

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ACSP) is a consortium of more than 100 university departments and programs offering planning degrees as well as programs that offer degrees affiliated with planning. We also have individual faculty, retired faculty, and student members. Most of our school members are located in North America, particularly the U.S., but our individual members are from around the world.

ACSP connects educators, researchers, and students, to advance knowledge about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We are committed to promoting the field of planning as a diverse global community that works collectively toward healthy, equitable, and sustainable neighborhoods, cities, and regions. Our members convene together at annual conferences and workshops, disseminate research through ACSP's journal of record JPER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and beyond, and engage with like-minded colleagues in a variety of interest groups including the Faculty Women's Interest Group, Global Planning Educators Interest Group, and the Planners of Color Interest Group.

### Description

In recognition of the commitment of our late colleague, Gill-Chin Lim, to the study of humanistic aspects of globalization, the ACSP and Global Planning Educators Interest Group (GPEIG) established an award in his name: The ACSP/GPEIG Gill-Chin Lim Award for the Best Dissertation on International Planning.

This award is funded annually by the Consortium of Development Studies (CODS), which was founded by Dr. Gill-Chin Lim in 1982. The Gill-Chin Lim Award for the Best Dissertation on International Planning recognizes superior scholarship in a doctoral dissertation completed by a student enrolled in an ACSP-member school.

This award provides cash grant of \$1,000. The winner will be invited to present the award winning paper in a special Student Award Paper Session at the Annual Conference and ACSP will provide waived conference registration if the student is available to attend the conference to present the paper.

### Deadline

The deadline for nomination is June 1 using the nomination form below.

Requirements:

The student's Dissertation Committee chairperson jointly with the department chair or director of graduate studies must make the nomination.

Each Planning School will submit no more than one dissertation each year.

It is expected that submissions will be selected through a participatory faculty and student process.

The nominees must have received their degree in the two years preceding the deadline.

The award committee will evaluate the submissions based on:

Innovative scholarship and perspective that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diverse processes of international planning in the global context, with a special focus on low-income countries of the "Global South;"

Relation to global cooperation,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ethics, and respect for global diversity pursued by GPEIG;

Creativity in exploring/proposing international planning alternatives;

Methodological rigor, including the extent and quality of original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e strengths, relevance and applicability of the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style, clarity, and originality.

Application

One file to be submitted using the form below must include:

The full dissertation (including table of contents and abstract);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one of which must be from the chair of the nominee's dissertation committee indicating why the nominated dissertation is deserving of the award; and official university document indicating the date of award of the degree.

Biography of Gill-Chin Lim(1946-2005)



Gill-Chin Lim, served as dean of ISP from 1991-95, and was also the MSU Endowed Professor of Asian Studies in a Global Context, a professor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the School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Humanistic Globalization.

Lim ear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9 and 1973), a master's at Harvard in 1975, and a doctorate at Princeton in 1987. He specialized in strategic planning, policy analysis, and governance, publishing and lecturing on topics of comparative development, housing, environment,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theories, and global education. Lim was the co-editor of the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and an international adviser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Prior to his work at MSU, Lim was a University of Illinois professor and administrator in the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Institute for Government and Public Affairs. Before joining the Illinois faculty in 1985, Lim was an assistant professor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Princeton University's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from 1980-85. He also taught at Northwestern University, was a visiting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nd a visiting fellow at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Committee

Chair: KUDVA, Neema, Associate Professor, Cornell University, kudva@cornell.edu [2019 - 2021]

BOU AKAR, Hiba Bou, Assistant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hb2541@columbia.edu

STEINER. Ruth, Professor, University of Florida -rsteiner@dcp.ufl.edu

SHELBY, Hayden(Past Winner), University of Cincinnati -shelbyhm@uc.edu

Past Award Winners

2021 Maria Atuesta, Harvard University

2020 Hayden Shelb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2019 Shruti Syal,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2018 Sean Kenned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7 Thomas Doutha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16 Ricardo Cardos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5 Yuan Xiao,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4 Sudeshna Mitra, Cornell University; honorable mention Graham Denyer Will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3 Sai Balakrishnan, Harvard University

2012 Nishtha Meht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onorable Mention Gautam Bh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1 Co-winners Pietro Caloger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Andrew Rumbach, Cornell University; Honorable Mention - Kyung-Min Na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0 Mi Shih,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Honorable Mention - Roberto Pire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9 Anupama Man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onorable Mention - Anuradha Mukherji,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8 Georgeta Vidica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onorable Mention - Sanjeev Vidyarthi,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2007 Michael Geiger Donov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onorable Mention - Sharlene Louis Mollett, University of Toronto

2006 N. Emel Ganapati,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onorable Mention - Tanja Winkl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5 Theresa Denise Williams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4 Mufid Qassoum,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A Closer Look at Maria Atuesta

Winner of the Gill-Chin Lim Award

In recognition of the commitment of the late Gill-Chin Lim to the study of humanistic aspects of globalization, the ACSP Global Planners Educators Interest Group (GPEIG) established the "Gill-Chin Lim Award for the Best Dissertation on International Planning" in his name. This award is funded annually by the Consortium of Development Studies (CODS), which was founded by Lim in 1982. This award recognizes superior scholarship in a doctoral dissertation completed by a student enrolled in an ACSP-member school.

The 2021 winner of the Gill-Chin Lim Best Dissertation in Planning Award is Maria Atuesta, Harvard University, for her paper, "Forced Migration and Neighborhood Formation: How Communitie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Find Residential Stability in an Unstable World."

"The Committee was unanimous in its choice and commends Dr. Atuesta Ortiz on her carefully designed and theoretically sophisticated explora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lationship to city-making through the study of housing and neighborhood formation in Granada, Colombia. Her work speaks to the issues planners should take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how people assert their rights to the city. We also found her writing beautiful and deeply appreciate how her dissertation gave voice to the challenges her interlocutors face in compelling ways," shares Neema Kudva, Chair of the Award Selection Committee.

Atuesta is currently a Postdoctoral Fellow at the UPenn Center for Latin American and Latinx Studies. She graduated with a PhD in Urban Planning from Harvard University and a master's in city and Regional Planning fro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ith a background in economics and history, her research explores dynamic relations between space and communities. Specifically, in her dissertation Atuesta studied how forced migrants accessed housing in Colombia and how this process has shaped the creation of different neighborhood communities with different claims on the city. With expertise working in policy-oriented projects for multilateral organizations, public offices, and academic research centers, Atuesta's research often includes policy analysis. She has studied how different policies have shaped our material and social environments with unintended consequences that have reproduced social inequality. She has been able to advance her research with support from the Fulbright program for Colombia, the 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the David Rockefeller Center for Latin American Studies and the U.S. Institute of Peace.

ACSP recently spoke with Atuesta about this honor. Let's take "A Closer Look" ...

Q: How did you feel when you learned you won?

A: I felt proud and happy that others appreciated my work in Granada and this has encouraged me to more actively share my work. I would love for more people to learn about this small city and the experiences of many displaced persons who live in its urban peripheries. I would love for new theories to emerge from these small urban centers, generally located at the peripheries of knowledge production.

Q: Who do you want to thank, if anyone?

A: I want to thank my dissertation advisors Diane Davis, Sai Balakrishnan, Mario Small, and Lawrence Vale and all the people in Granada, Colombia, who shared their stories with me. My family and colleagues in the PhD program also provided a lot of support.

Q: What inspired you about this project?

A: Originally, Granada was not the ideal place I had in mind for fieldwork. Yet, I was surprised by the recent transformations the city has gone through and how it has incorporated migrants representing about one fourth of its population in the last three decades. The varieties of experiences of neighborhood formation that I encountered in Granada were a profound inspiration.

Q: What's next?

A: As I wrote above, I would love for more people to learn about this small city and the experiences of many displaced persons who live in its urban peripheries. I would love for new theories to emerge from these small urban centers, generally located at the peripheries of knowledge production. Hence, I will keep working in that direction. I would also like to translate my work to Spanish for it to be read in Colombia, and, hopefully,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I would like my interviewees to be able to get a glimpse into the stories that they have shared with me.

Atuesta will be sharing her winning paper at the ACSP Annual Conference.

Congratulations to Atuesta and special thanks to the Awards Selection Committee:

Neema Kudva, Chair, Cornell University

Hiba Bou Akar, Columbia University

Ruth Steiner, University of Florida

Hayden Shelby, Past Winner, University of Hawaii

## 19. 관련 기사들(환경대학원 도서관 소개)

행정대학원과 환경대학원은 학부생에게 다소 낯선 곳. 그러나 두 대학원 모두 훌륭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문을 두드려보면 어떨까? 환경대학원 자료실은 도시설계, 조경, 교통관리, 환경과 관련한 도서를 학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초대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역임한 임길진 박사가 기부한 것이며, 이 기부 도서 중에 한국에 단 한 권만 있는 책도 많아 이를 보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또 행정대학원 자료실은 행정학 관련 4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고시 수험서를 종류별로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라고.